

學校圖書館과 讀書指導의 問題

李 正 熙
京畿高司書教師

1. 序 言

圖書館界나 讀書指導問題로 금년만큼 부산을 떨었던 해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韓國圖書館協會에서는 國際大會인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IFLA)를 우리나라에 誘致하여 성공리에 끝내므로서 모처럼 圖書館界에서도 國威를 宣揚하였다고 自負하고 싶다.

그런가하면 1974년에 발족한 韓國讀書科學會에서도 한국형 동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讀書教育”이란 주제 아래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국제독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76.8.12) 이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중에는 과반수 이상이 外國사람들이었으며 그것도 圖書館人에 아니고 讀書指導를 담당하는 教師라고 들었다. 다시 말하면 外國에서는 圖書館담당교사가 있고 또 讀書指導를 담당하는 教師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담당하는 일에 따라서 몇가지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다. 이분들이 받은 교육과정도 圖書館學科와는 다른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각각 다르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들 讀書指導교사의 계층에 관한 설명은 다음 3항에서 韓國讀書科學會에 제공해준 資料를 中心으로 言及하려 한다. 또 하나의 행사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大韓出版文化協會에서는 韓國圖書館協會와 어린이會館과의 합동으로 第1回 어린이讀書週間을 制定하여 學校讀書指導에 대한 세미나를 出版協會 회의실에서 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全國圖書館담당장학사, 圖書館人, 兒童文學家, 出版界 人士, 韓國讀書科學會 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아울러 진지한 討論이 있었다. 왜 이런 행사를 너털하게 소개하느냐고 할런지 모르겠다.

여기서 우리 圖書館人, 그중에서도 學校圖書館을 담당하고 있는 司書教師 입장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처해있는 이시점에서 讀書指導의 重要性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으면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제도나 지도내용 혹은 지도방법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리라고 믿는다. 최근에 와서 凶惡犯들이 亂舞하고 있다. 이들 凶惡犯들중에서도 특히 20代의 靑

少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순수한 韓國的 教育을 받은 사람이다.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教育이란 것을 생각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教育이라한 것은 부단 學校教育뿐만 아니라 一般的인 教育 다시 말하면 社會教育이나 가정교육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아무튼 해방후의 教育이 입시준비에 광분하여 책을 읽지 않아서라고 더러는 말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다고 본다. 몇년전에도 讀書에 대한 단체가 많이 등장하였던 때를 기억한다. “독서인구개발공사”와 “자유교양대회”말이다. 讀書指導問題가 그렇게도 重要하다면 왜 이런 단체들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춰야 하는지의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서 앞으로의 讀書指導에 대한 運動이 教育에는 물론 社會에 바람직한 역할을 해야됨을 強調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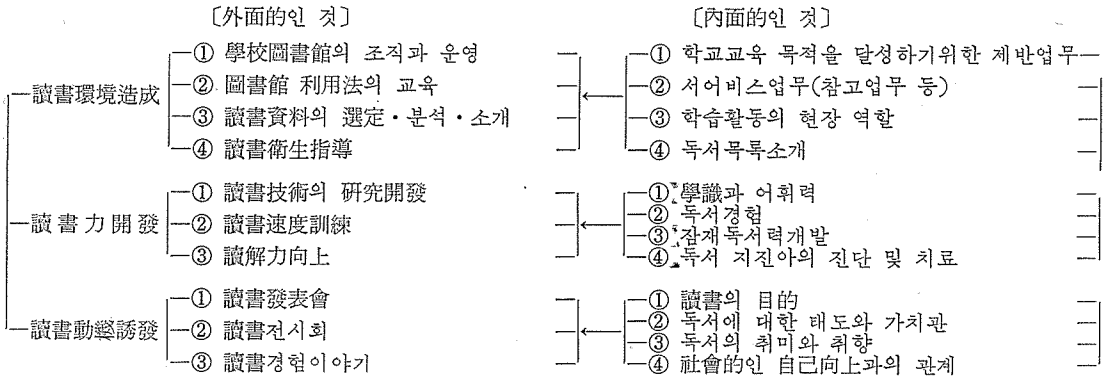
2. 學校圖書館의 機能中 讀書指導의 問題

圖書館의 機能에 대한 문헌중 우리들의 주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만을 소개해보면 韓國圖書館協會 刊인 “圖書館實務便覽(p. 31)”에서는 美國圖書館協會의 用語解說集과 우리나라의 圖書館法 第2條를 引用하여 ① 教育, ② 調查研究, ③ 情報, ④ 學習 및 敎養, ⑤ 美的 鑑賞, ⑥ 테크리에이션 등을 들고 있으며 특히 學校圖書館은 學習指導를 中心으로한 機能을 重視했다. 또한 김종한 著, “學校圖書館”과 경상남도 教育연구소 발행인 “학교도서관 경영의 실제”에서는 學校圖書館의 機能은 그 目的에 따라서 규정지워져야 하는데 그 學校圖書館의 目的은 學校教育의 目的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學校의 여러가지 教育 활동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教育과정을 전개해나가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모든 學校자료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學校圖書館의 機能이요 임무란 것이다.

그러면 讀書指導가 學校圖書館의 機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學校圖書館의 機能이 그 學校의 여러가지 教育활동과 직접결해야 된다고

<별표 1>

讀書指導를 위한 諸般 要素의 構造化



왔을때 讀書指導는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됨은 말할 여
지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동안 필자는 學校圖書館의 諸般問題點, 다
시 말하면 司書教師의 T/O와 進路問題, 예산확보문제
등을 연구 검토하는 동안 다른 圖書館界와는 달리 讀
書指導를 제대로 해야만 그 본연의 위치를 찾을 수 있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특별활동시간이나
讀書指導를 해보려고 했으나 어떤 내용을 어떤 方法
으로 해야 될지 혹은 讀書에 대한 問題제기 내지는 讀書
지진아에 대한 분석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무엇을 어떻
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래서 고작한다는 것이 讀書
를 해야 할 資料選定과 그 제공, 그에 대한 결과 처리
로 독후감 쓰기, 독서토론, 독서낭독회, 독서발표회
등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독서상담이었다.

그러나 이런것들은 讀書力이 開發되지 않아서 일어
나는 “讀書문제아”라고나 할까 하는 어떤 讀書心理의
인 面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讀書
指導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1974년에 발족한 韓國讀書
科學會에서 발표하는 월례회에 몇차례 참가하고 거기
서 얻은 몇가지의 자료에 접하면서 讀書指導에 關한
概念이 지금까지 필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
는 것을 느꼈다가 序文에서 言及한바의 국제독서 세
미나에서 外國에서는 讀書指導전문교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얻은 讀書指導에 대한 諸般要素를 필자 나름
대로 構造化해 본 것이 <별표 1>이다.

필자도 그동안 讀書指導를 學校圖書館의 運營활동범
위내에서만 생각하였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별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讀書指導를 위한 많은 要素를
종합분석한 결과 外面的인 것과 內面的인 것으로 묶어
봤으며 그것을 다시 讀書環境의인 것과 讀書力開發을
위한 것과 讀書動機誘發을 위한 것으로 區分하여 봤
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이거나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또한 이들 세 要素는 상호유동작용을 해야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무리 풍부한 예산으로 유능한 司書教師
가 資料의 選定과 構成을 이상적인 것으로 조직한 學
校圖書館으로 운영하면서 全校生에게 그 圖書館의 利
用法에 대한 교육을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여 잘 습득
시켰다 하더라도 學生들이 책을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열람실은 자습실이 될 것이며 서고는 창고가
되고 말것이다. 또한 책을 읽어야 할 수 밖에 없는 동
기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읽고자하는 책을 손쉽게 얻을
수 없을 때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책을 읽을 수 있는 동기도 圖書館의 필요성
큼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책 읽을 필요성에 의하여 책을 손에 들고 읽
기 시작했으나 하루에 불과 몇장 밖에 못읽는 형편이
라던 그 사람은 아마 책 읽는 일이 권태로와져서 즉시
그만둘 것이다.

여기서 다시 생각할 것은 讀書力이나 讀書動機를 크
게 보아서 환경으로 취급하여도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그 세분된 內容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도해야 될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다른 점은
讀書力開發에 대한 理解度에서 해결되겠지만 이것을
여기서 필자가 언급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미급하다고
생각하여 다음의 책 한권을 소개한 것으로 대신하고
싶다.

(金炳元 著, 讀書와 讀書指導)

3. 讀書指導를 담당할 教師

序文에서 약속한대로 外國의 讀書指導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교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자격규정에 대한
자료를 韓國讀書科學會에서 제공해줬는데 이 자료는
國際讀書學會(IRA=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에서 발행한 판물렛이었다. 우선 필자의 능력이 미처

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대략 요약해서 소개하므로써 讀書指導전문교사에 關한 문제가 제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司書教師의 情形과도 관련시켜 생각하고 싶다.

※ 독서전문교사의 역할과 책임 및 자격규정

I. 일반적인 역할; 독서지도요원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 ① 학생과 직접활동하는 독서지도교사와 독서진료교사가 있다.
- ② 또 독서지도를 하기 위한 업무와 그 계획수립의 책임을 진 독서상담역과 독서감독관으로서 독서지도교사와 직접활동하는 요원이 있다.

II. 각독서전문교사의 역할

- 가) 독서지도교사; 독서의 교정과 啓發을 담당한다.
- 나) 독서진료교사; 독서무능력자에 대한 진단, 교정 및 교정계획을 주임무로 한다.
- 다) 독서상담역; 독서에 대한 특수한 교육을 받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독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학교의 일반교사와 행정가, 또는 다른 전문직과 직접 활동을 한다.
- 라) 독서감독관; 학교에서(a school system) 이루어지는 독서계획의 모든 분야를 지도 담당한다.

III. 각독서전문교사의 책임

가) 독서지도교사

- 1) 진단과 교정을 요하는 학생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2) 진단자료를 통한 교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 3) 위의 교정계획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4) 학생의 교정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5) 담임선생님과 학부모에게 학생의 교정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6) 필요로하는 보다 고급단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독서진료교사

- 1) 독서지도교사에게 기대되는 모든 기술을 예시할 수 있어야 하며 훈련과 경험을 통하여 보다 심각한 독서무능력자를 진단하고 처리할줄 알아야 한다.
- 2) 유망한 독서진료교사나 독서지도교사의 훈련에 있어서 그 능률성을 예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독서상담역

- 1) 현안의 프로그램을 조사 및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변화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2) 독서지침을 각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학생과 교사와 그 지역사회의 필요와 일치되는 것을 프로그램 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3) 독서계획을 개발하고 교정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독서감독관

- 1) 제도적인 독서지침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되며 동시에 이것들을 학교행정당국과 직원 그리고 일반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2) 훌륭한 독서훈련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3) 학교내의 독서계획의 모든면에 있어서 독서인을 평가하고 그들의 욕구를 사정할 수 있어야 한다.
- 4) 독서에산에 관하여 행정당국과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IV. 각독서전문교사의 자격규정

※ 일반적인 자격규정

(모든 독서전문교에게 적용된다)

- ① 독서지도에 대한 연구를 평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② 독서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구들에게 적극적인 공헌을 기꺼이 발휘해야 한다.
- ③ 독서지도계획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가) 독서지도교사

- 1) 독서지도교사는 3학년이상의 교사생활을 한차례야 한다.
- 2)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Master's Degree) 과정을 이수한자로서 그 석사학위과정에서

① 다음 중 최소한 한 코스를 적어도 12학기 동안 이수한자라야 한다.

- ㉠ 독서지도의 기초와 조사연구(독서지도 혹은 독서심리학)
- ㉡ 독서무능력자들의 진단과 교정(관찰, 상담 절차, 진단자료, 표준, 비표준테스트, 보고서작성 등에 대한 자료와 지도방법 등)
- ㉢ 독서에 대한 임상실험과 실습(독서무능력자의 진단과 교정에 대한 전반적인 임상경험)

② 학사 혹은 석사과정에서 다음중 한 분야를 연구한다.

- ㉠ 측정과 혹은 평가
- ㉡ 아동 혹은 청년심리학
- ㉢ 人格, 知覺, 학습행동면을 다루는 심리학
- ㉣ 아동 및 청소년문학

③ 기타 독서연구관계 프로그램을 이수한자

나) 독서진료교사

1) 독서지도교사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다음 각과정을 포함하는 6년차의 대학원과정을 이수한 자

- ① 독서의 진단과 교정 및 학습문제의 고급과정
- ② 개별검사과정
- ③ 독서장애자의 진단 및 교정에 있어서의 고급단계 임상실습
- ④ 유능한 독서진료교사의 지도하에 의한 현장실습

다) 독서상담역

1) 독서지도교사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다음 각과정을 포함하는 6년차의 대학원과정을 이수한 자

- ① 독서의 진단과 교정 및 학습문제의 고급과정
- ② 독서계획의 개발면에 관한 고급과정
- ③ 교과과정의 개발과 감독에 관한 과정
- ④ 공중관계(public relations)에 관한 과정이나 경험
- ⑤ 유능한 상담역이나 감독관 아래서의 현장경험

라) 독서감독관

1) 독서지도교사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다음 각과정을 포함하는 6년차의 대학원과정을 이수한자

- ① 독서상담역의 자격요건에 표시된 ①②③④의 과정
- ② 행정절차에 관한 과정
- ③ 유능한 독서감독관 아래서의 현장경험

지금까지의 讀書指導에 대한 概念을 찾아보면 韓國 圖書館協會 發行인 圖書館用語集에서는 “個人的 助言 또는 選定된 書目을 通하여 各讀者의 能力과 趣味에 맞는 圖書를 選擇할 수 있도록 指導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讀書指導員이란 用語解説에서도 “成人의 讀書問題를 다루는 司書로서 成人들에게 圖書를 추천하고 選定圖書目錄을 作成 提供하고 圖書館과 圖書館資料의 利用法을 指導하며 各種 成人教育機關과 綿密한 關係를 維持하는 任務를 지니고 있다. 이를 讀書相談員이라고도 한다”로 되어 있어 다시말하면 책을 選定제공하는 일과 圖書館資料를 利用하는 法을 指導하는 것으로 그 概念이 요약된다.

그러나 여기서 소개한 “독서전문교사의 역할과 책임 및 자격규정”에서 볼 수 있는 讀書指導의 概念은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면 讀書指導란 讀書指導를 해야할

학생을 측정 및 진단한 결과로서 찾아내서 그 학생의 정도에 따른 치료와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담임선생님과 학부모에게 알려 讀書力이 향상돼 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讀書無能力者란 척도도 문제려니와 그것을 진단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또한 교정에 필요로 하는 자료와 도구가 먼저 개발돼야할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指導할 能力이 있는 教師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外國에서는 독서클리닉(Reading Clinic)이란 것이 유치원과정에서부터 대학과정까지 단계별로 개발되어 있다고 들었다.

또한 讀書교정훈련과정도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특수한 “카메라”¹⁾와 讀書시속을 넓히는 훈련에 사용되는 “타키스트스코프(Tachistoscope)”²⁾와 讀書속도를 훈련하는데 사용되는 讀書속도조절기³⁾ 등이 기계화되어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讀書指導에 의하여 英國에서는 1960年代에 6주를 단위로 총 9시간을 수강한 피교육자중에서 1본에 3천단어를 읽을 수 있는 讀書力이 개발된 사람도 나타났다고 한다⁴⁾. 우리도 讀書잠재능력을 指導啓發한다면 이에 못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성급하기만 하다.

또 한가지 讀書지도교사의 자격규정을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다.

讀書指導教師는 一般教師 生活을 3년이상 했거나 혹은 석사학위(Master's Degree) 과정을 이수한자로 돼 있다. 그것도 그 교육기간중 讀書無能力者를 진단할 수 있고 또한 교정할 수 있는 과목, 이에 대한 임상실습과 실습, 혹은 讀書心理學, 아동 혹은 청년심리학, 人格, 知覺, 학습행동면을 다루는 心理學, 아동 및 청소년문학, 측정과 혹은 평가 등의 과목중 최소한 한분야는 전공한 사람으로 돼 있으니 이상의 분야를 대부분 전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 우리 나라 司書教師도 여기서 말하는 概念의 讀書指導를 담당하려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던지 아니면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느낌이다.

(21面に 繼續)

1) 金炳元 著, 讀書와 讀書指導. p. 32.

2)3) 金炳元 著, 讀書와 讀書指導. pp.77~78.

4) 金炳元 著, 讀書와 讀書指導. p. 79.

으로 나와 있다. 즉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19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은 14%였으나 청소년범죄의 증가율은 31%로 나타나 있는데 이를 도표로 보면 위와 같다.

4) 注力해야 할 靑少年 讀書教育

우리나라에서의 각급 圖書館들은 예외없이 靑少年들을 爲한 열람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靑少年들의 社會問題를 야기시키는 빈도 수는 높아져, 뜻있는 분들의 개탄을 자아 내고 있다.¹¹⁾

오늘날 학교교육은 교과위주의 수업에도 쫓기는 형편을 감안할 때 모든 기존 讀書施設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청소년들로 하여금 독서를 통한 정서교육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¹²⁾

독서 교육이란 물론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永續教育(Life long education)으로 어려서 부터 생활화되고 습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나 앞으로는 학교 및 가정교육을 통한 의도적인 독서교육과 체계적인 지도가 뒤따라야 하겠다.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독서교육은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¹³⁾

오늘 날의 독서교육도 이러한 원칙에서 전개되어야 함은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유관된 많은 독서의 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이 독서를 하도록 제정하여 전국민의 독서환경을 한층 調和있게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통한 정서감을 살찌우도록 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과제라고 필자 나름대로 생각되어 청소년들을 爲한 讀書教育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이제까지의 公共圖書館의 讀書機能을 靑少年들을 爲해 가일층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 趙海衡, 靑少年善導의 理論과 實際, 三和出版社, p. 8, 1975.

12) 梁泰鎮, 讀書와 環境, 도철월보 Vol. 15, No. 9, p. 2.

13) 梁泰鎮, 讀書教育和 圖書館의 役割, 도서관 Vol. 31, No. 4, p. 20~26.

(25面的 繼續)

4. 맺는 말

비단 學問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一般知識人 혹은 文化生活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日常生活에서 많은 책을 읽을 필요성을 알고 있다.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는 讀書力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온 國民의 讀書力은 國力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루 속히 이 讀書力을 啓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지 못하다. 물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든 教師가 讀書指導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뒷받침을 學校圖書館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讀書指導는 제3항에서 언급한 네계층의 讀書指導教師가 지도하는 것과 같은 진단, 교정, 평가 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司書教師들은 스스로 느낄 줄 안다.

그렇다면 外國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學校마다 司書教師와는 다른 讀書指導教師를 교육시켜서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예산과 교육과정의 시간배정문제 등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도 통합여부를 연구하고 있는 형편이라면 이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學校圖書館과 이를

운영담당하고 있는 司書教師는 제2항의 [별표 1]에서提及한 바의 讀書指導를 위한 諸般要素의 構造化에 표시된 모든 업무를 한사람이 담당해야 될 형편이다. 그러나 司書教師란 직업이 현재 圖書館의 업무만 해도 과중한데다가 教師로서의 進路問題가 차단되어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全國 초·중·고등학교에 T/O가 다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의 讀書指導는 出發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以上の 問題點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圖書館法이나 教育法을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問題들이 더욱 연구검토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特別히 현재의 學校圖書館에서 一元化돼 있는 司書教師와 보조원이란 제도를 圖書館運營과 讀書指導를 주무로 하는 教師職과 圖書館資料를 정리 보존하는 一般職인 學校司書도 二元化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